

靈樞·雜病篇의 雜病治療經絡에 대한 研究

이 문 옥¹ · 육 상 원¹

¹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A Study on the Meridians for treat the miscellaneous diseases in the Jap ByoungPyeon(雜病篇) of the Young Chu(靈樞)

Moon-Og Lee¹, Sang-Won Yuk¹

¹Dept. of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Jap Byoung(雜病) of the Young Chu(靈樞), one of the classical book of oriental medicine contains symptoms and remedies for various diseases that can be seen on human body. But it i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the Jap Byoung(雜病), because it is written in old chinese and there are many printer's error and omissions or adds in this book. As a consequence of above reason, the writer of this article has researched to find out the exact meaning of that.

Methods : So in this part we study a woodblock-printed book of successive generation and view of annotators, and add adding notes, adjustment, translation to exact comprehension of the original text.

Results & conclusions : The principle ideas of the the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Jap Byoung(雜病) is consist of five part. In chapter 1, we present symptoms occurred by the upstream current of Qi(氣逆) and their treatments by taking meridian flowing the body parts on which the symptoms occur. In chapter 2, we deal with symptoms such as ikgun(噎乾), a pain of the knee(膝中痛), huby(喉痺), epistaxis(衄血), lumbago(腰痛), anger(怒), a pain of the jaw(頰痛), a pain of the nape(項痛) and their remedies. In chapter 3, since abdominal inflation occurs when the Qi(氣) of the five viscera(五臟) is damaged or go upstream, I discussed that the treatment should be given by taking the meridian accordingly. In chapter 4, we deal with the remedy for heartache, and different meridians to be taken by symptom, and parts on which needle to be used, and detailed remedies. In chapter 5, we present other diseases, detailed body parts to be cured and remedies by referring symptoms for a pain of the jaw(頰痛), the upstream current of Qi(氣逆), hiccup(噦), etc. Especially, we introduce a part of Doinbup(導引法) for wegurl(痿厥) and remedies for hiccup(噦) such as inducing sneeze by stimulating nostrils, holding one's breath, etc.

Key words : Jap Byoung, the upstream current of Qi, deafness

I. 緒 論

· 교신저자: 육상원,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063-290-1565, Fax. 063-290-1558, E-mail: yuksw@woosuk.ac.kr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수행 되었음)

「雜病」은 『靈樞』 卷五 第二十六에 編述되어 있는데, 『太素』에는 卷二十五 「十二癰」·卷二十六 「厥頭痛」, 「厥心痛」·卷三十 「頭齒痛」, 「頰痛」, 「項痛」, 「喉痺噎乾」, 「氣逆滿」, 「療噦」, 「膝痛」, 「

痿厥, 「刺痞節度」, 「刺腹滿數」, 「耳聾」, 「衄血」, 「喜怒」, 「腰痛」에 나누어 編述되어 있다.

本篇은 각종 疾病들의 症狀과 診斷 및 治療方法에 대하여 論술하고 있는데, 本篇의 內容에서 많은 疾病을 총괄하여 광범위하게 論술하였기 때문에 篇名을 「雜病」이라 하였다¹⁾.

本篇은 內容상 五章十一節로 나눌 수 있는데, 第一章은 厥氣가 上逆하여 발생하는 症狀과 發病하는 부위를 順행하는 經絡을 취하여 治療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第二章은 噎乾, 膝中痛, 喉痺, 瘧疾, 齒痛, 耳聾, 衄血, 腰痛, 怒, 顛痛, 項痛 등의 病症과 그 治法을 論하였으며, 第三章은 腹滿의 종류와 症狀에 따라 經絡을 取해야함을 論하였으며, 第四章은 心痛의 治療法을 論하고 그 兼症에 따라 取하는 經絡이 달라지는 것과 心痛에 刺鍼해야할 부위와 治療方法에 대하여 論하였으며, 第五章은 기타 疾病들 즉, 顛痛, 氣逆, 腹痛, 痿厥, 噎 등의 病症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治療部位와 方法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痿厥時의 導引法과 噎의 治療에 刺鼻, 閉氣 등의 治法을 소개하였다.

이상과 같이 本篇은 人體에 발생하는 각종 疾病의 症狀과 그 治療에 대한 內容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文章이 짧고 簡략하며, 古文으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版本마다 글자가 다르며, 전면적인 各 註釋家들의 比較 研究가 없을 뿐만 아니라 註釋도 한결같지 않아 이에 版本의 오류를 바로 잡고 校註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國譯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解得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연구에 임하였다.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容別로 五章十一節로 나누고, 原文과 註釋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國譯 및 結論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의 底本은 聚珍倣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任應秋의 『黃帝內經章句索引』, 張介賓의 『類經』, 河北醫學院의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여 內容을 章과 節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現代化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調査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語과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九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異見의 對象이 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國譯은 原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 文獻에 「『』」, 文獻의 章節에 「『』」等이며, 脚註는 '1), 2), 3), 4), ……」의 一連番號로 表記하였다.

II. 研究 資料 및 方法

1. 研究方法

1) 陳璧琉·鄭卓人. 靈樞經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241.

2. 研究資料

<表.一> 校勘 書名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1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明繡谷書林周日校重刊本	周本
4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叢書本	統本
5	明金陵尙義齋刊本	金陵本
6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黃校本
7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8	黃帝內經太素	太素
9	黃帝內經素問	素問
10	針灸甲乙經	甲乙
11	備急千金要方	千金
12	聖濟總錄	總錄
13	素問病機氣宜保命集	保命集
14	類經	類經
15	張馬合編 黃帝內經素問靈樞	合編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號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黃元御	1756	靈樞懸解	黃
6	丹波元簡	1808	靈樞識	丹波
7	陳璧琉·鄭卓人	1962	靈樞白話解	白話
8	鄺鶴春	1981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鄺
9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Ⅲ. 本 論

第一章 經氣가 厥逆하여 생긴 病症과 治法

【原文】

厥에 挾脊而痛者가 至頂하야 頭沈沈⁽¹⁾하고 目目荒 目荒⁽²⁾하고 腰脊强하면 取足太陽膕中血絡이요 厥에 胸滿面腫하고 脣深深⁽³⁾하고 暴言難하고 甚則不能言하면 取足陽明이라 厥氣

가 走喉而不能言하고 手足清하고 大便不利하면 取足少陰이요 厥而腹嚮嚮然⁽⁴⁾하고 多寒氣하고 腹中穀穀⁽⁵⁾하고 便溲難하면 取足太陰이라

【校勘】

- 1) 目目荒 目荒 然: 「太素」卷二十六 「厥頭痛」에는 「目目芒 目芒 然」으로, 「甲乙」卷七 第一中 「類經」卷二十二 「針刺類刺厥痺」, 「合編」에는 모두 「目眈眈然」으로 되어 있다.
- 2) 厥而腹嚮嚮然: 「甲乙」卷七 第三에는 「厥而腹膨膨」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沈沈(침침):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을 말한다. 沈; 무거운 침.
- (2) 目荒 目荒(황황): 눈이 희미한 것을 말한다. 眈眈과 같다.
- (3) 脣深深(순딤딤): 입술이 부어 올라서 침이 흘러 거들 수가 없는 모양이다. 深; 모이는 모양 딤.
- (4) 嚮嚮然(향향연): 팽만하며 소리가 나는 형상이다. 嚮; 울릴 향.
- (5) 穀穀(곡곡): 흐르는 물소리를 형용한 것으로 腹中腸鳴을 뜻한다.

【較註】

[1] 厥 挾脊而痛者 至頂 頭沈沈然 目目荒目荒然 腰脊强 取足太陽膕中血絡

楊·景岳·張은 “이는 客氣가 經에서 厥逆하여 雜病이 된 것을 論한 것이다. 足太陽脈은 目內眥에서 起始하여 上行해서 頰部로 가서 巔頂部에서 교차하고 巔頂部를 통해 腦에 絡하고 돌아 나와 下行하여 項部에 이르러 척추를 끼고 腰中으로 들어간다. 太陽之氣는 膚表를 주관하니 客

氣가 처음 太陽을 傷하게 하면 經氣가 厥逆하여 頭目項脊의 病이 되므로 마땅히 足太陽經의 腦中血絡을 취하여 그 邪氣를 瀉한다. 沈은 重이다.²⁾”고 하였다.

[2] 厥 胸滿面腫 脣溼溼 暴言難 甚則不能言 取足陽明

楊張은 “足陽明脈은 코에서 起始하여 콧마루에서 교차하고 입을 끼고 입술을 돌아서 喉嚨을 따라 缺盆으로 들어가서 胸膈으로 下行한다. 本經에 ‘顔面に 적중하면 곧 陽明으로 下行한다’고 하였다. 대개 안면의 피부에 침입하면 얼굴이 붓고 陽明經으로 下行하면 胸滿하고 입술이 붓는 諸證이 된다. 喉嚨은 氣가 上下로 다니는 곳이고 陽明의 脈이 喉嚨을 循行하므로 逆上하면 氣機가 不利하여 갑자기 말하기가 곤란하고 심하면 말할 수 없으니, 마땅히 足陽明의 經을 취하여 그 邪氣를 瀉한다.³⁾”고 하였다.

[3] 厥氣 走喉而不能言 手足清 大便不利 取足少陰

楊은 “手足清은 手少陰과 足少陰이 통하므로 手足이 차니 足少陰의 輸穴을 취하여 병을 치료한다.⁴⁾”고 하였고, 景岳은 “厥氣가 喉嚨으로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은 腎脈이 喉嚨을 循行하여

舌本에 머무르기 때문이고, 手足이 清한 것은 腎이 水를 主하므로 陰邪가 盛하기 때문이고, 大便不利는 陰氣가 不化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足少陰經穴을 취해야 한다.⁵⁾”고 하였고, 張은 “足少陰腎脈은 喉嚨을 循行하여 舌本에 분포하니 厥氣가 咽喉部에 上逆한 까닭으로 말할 수 없고 腎은 生氣之原이니 氣逆하면 手足이 冷해진다. 腎은 二陰에 開竅하므로 大便不利하니 마땅히 足少陰을 취하여 그 逆氣를 통하게 한다.⁶⁾”고 하였다.

[4] 厥而腹嚮嚮然 多寒氣 腹中穀穀 便溲難 取足太陰

楊景岳은 “腹嚮嚮然은 寒氣가 脾에 凝滯한 것이다. 또한 穀穀然은 水穀이 나뉘지 않은 소리다. 大小便이 어려운 것은 脾脈이 陰器에 結聚한 것이므로 마땅히 足太陰經穴을 취한다.⁷⁾”고 하였고, 馬는 “厥逆이 病이 됨에 배가 팽만하여 氣가 잘 흠어지고 또 寒氣가 많이 있게 되고 또 물 흘러가는 소리가 있고 대변보기가 심히 어려우면 마땅히 足太陰脾經의 穴을 취하여 刺鍼한다.⁸⁾”고 하였고, 『白話』에는 “腸鳴을 治療함에 應當 脾經의 兪穴인 太白을 취하니 이른바 ‘臟病을 治療하는 것은 그 兪穴을 치료한다.’고 말한

2) 楊: 頭目項及腰脊膈은 足太陽脈所行 故로 生病膈中也라 ○景岳: 厥이 在頭項腰脊者는 膀胱經病也 故로 當取腦中血絡이니 卽足太陽之委中穴이라 ●張: 此는 論客氣가 厥逆於經하야 而爲雜病也라 足太陽之脈은 起於目內眥하야 上額交頰하고 從頰入絡腦하고 還出別下項하야 挾脊抵腰中이요 太陽之氣는 主於膚表하니 客氣始傷太陽하면 則經氣厥逆하야 而爲頭目項脊之病이라 故로 當取足太陽腦中血絡하야 以瀉其邪라 沈은 重也라

3) 楊: 此는 皆足陽明脈所行 故로 取足陽明輸하야 療主病者라 ●張: 足陽明之脈은 起於鼻하야 交頰中하고 挾口環唇하야 循喉嚨入缺盆하야 下膈이라 本經에 曰中於面이면 則下陽明이라하니 蓋中於面之皮膚하면 則面腫하고 下於陽明之經하면 則爲胸滿脣溼諸證이라 喉嚨者는 氣之所以上下也요 陽明之脈이 循喉嚨하니 逆則氣機不利 故로 暴難言하고 甚則不能言也니 當取足陽明之經하야 以瀉其邪라

4) 楊: 手足清者는 手少陰與足少陰通 故로 手足冷이니 取足少陰輸하야 療主病者也라

5) 景岳: 厥氣가 走喉하야 而不能言者는 腎脈이 循喉嚨하야 繫舌本也요 手足清者는 腎主水하니 陰邪盛也요 大便不利者는 陰氣不化也라 故로 當取足少陰經穴이라

6) 張: 足少陰腎脈은 循喉嚨하야 挾舌本하니 厥氣가 上逆於喉 故로 不能言이요 腎爲生氣之原이니 氣逆 故로 手足清이요 腎開竅於二陰 故로 大便不利하니 當取足少陰하야 以通其逆氣라

7) 楊: 腹脹多寒과 便溲不利는 皆是足太陰脈所爲 故로 取之也라 ●景岳: 腹嚮嚮然은 寒氣滯於脾也요 穀穀然은 水穀不分之聲也요 便溲難은 脾脈聚於陰器也 故로 當取足太陰經穴이라

8) 馬: 厥逆爲病에 腹中嚮嚮然而氣善走布하고 且多有寒氣하며 又穀穀然而有聲하고 大便甚難하면 當取足太陰脾經之穴하야 以刺之라

하나의 道理이다.⁹⁾”고 하였다.

第二章 各種 疾病의 治療

【考 察】

1. ‘腎深深’에 대하여 景岳은 ‘부어오른 모양’이라 하고, 馬는 ‘침이 나와 아래로 떨어지는 의미’로 보았는데, 文憲上 景岳과 馬의 의견 모두가 일정부분 타당하므로 입술이 부어 올라서 침이 흘러도 거들 수가 없는 모양으로 보는 것이 尙當하다고 사료된다.
2. ‘多寒氣’에 대하여 景岳은 寒氣가 脾에 凝滯하여 생긴다고 하였고, 馬는 厥逆하여 氣가 잘 흠어져서 寒氣가 많아진다고 하였고, 張은 脾가 陰中之至陰이므로 寒氣가 많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景岳의 注와 같이 보는 것이 尙當하다고 사료된다.

【國 譯】

厥逆에 脊椎를 따라 아픈 것이 頭頂部에 이르러서 머리가 무겁고 눈이 희미하고 腰脊部가 뻣뻣하게 아프면 足太陽經의 腦中部位에 있는 血絡을 취하여 치료하고, 厥逆에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붓고 입술이 부어 갑자기 말하기가 어렵고 심하여 말할 수 없으면 足陽明經을 취하여 치료한다. 厥氣가 咽喉部로 올라가서 말할 수 없고 손발이 싸늘하고 大便이 원활하지 못하면 足少陰經을 취하여 치료하고, 厥逆하여 배가 팽만하고 腹部에 寒氣가 많으며 뱃속에서 물소리가 나고 大小便이 원활하지 못하면 足太陰經을 취하여 치료한다.

第一節 噤乾의 治療

【原文】

噤乾하고 口中熱如膠하면 取足少陰¹⁾이라

【校 勘】

- 1) 取足少陰: 『甲乙』卷七 第一中에는 ‘取足少陽’으로 되어 있다.

【較 註】

[1] 噤乾 口中熱如膠 取足少陰

楊·馬·景岳은 “이는 噤乾口中熱에 마땅히 刺鍼하는 법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噤咽乾燥하고 口中에 熱이甚하여 그 津液이 아교와 같이 粘稠해지면 마땅히 足少陰腎經의 穴을 취하여 補하여야하는데, 이는 水가 왕성하면 곧 火가 衰하기 때문이다.¹⁰⁾”고 하였고, 張은 “대개 心腎의 水火之氣는 上下로 수시로 交濟하는데 少陰之氣가 아래로 厥逆하여 위에서 心과 交濟하지 못하면 火熱이 심해져서 목이 건조해지고 口中에는 열로 阿膠처럼 되니, 足少陰을 취하여 厥逆된 氣를 흠어서 水陰이 위로 交濟하도록 疏通시킨다.¹¹⁾”고 하였다.

【考 察】

1. 噤乾의 治療에 대하여 馬·景岳 등은 足少陰腎經을 補하여 水를 旺盛하게 해서 火를 衰하게 하여 治療한다고 하였고, 張은 噤乾이 氣가 아래

9) 白話: 治腸鳴에 應取脾經俞穴太白이니 所謂治臟者治其俞가 就是這個道理라

10) 楊: 足少陰脈이 至舌下 故로 口中熱에 取之라 ◎馬: 此는 言噤乾口中熱者에 當有刺之之法也라 噤咽乾燥하고 口中甚熱하여 其津液如膠之稠하면 當取足少陰腎經之穴하여 以補之니 水王則火衰也일새라 ○景岳: 足少陰之脈이 循喉嚨하여 繫舌本이요 噤乾口中熱如膠者는 陰不足也 故로 當取而補之라

11) 張: 蓋心腎水火之氣는 上下時交로대 少陰之氣가 厥逆於下하여 而不上交於心하면 則火熱甚而噤乾하고 口中熱如膠矣니 取足少陰하여 以散逆氣하여 而通水陰之上濟라

로厥逆하여 心腎이 相濟하지 못한 것이니 足少陰을 취하여 逆氣를 疏散시켜서 上濟하여 治療한다고 하였는데, 原文의 症狀은 기본적으로 陰液이 부족하여 滋潤, 濡養 機能이 低下된 것으로 上部로 咽喉部를 滋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陰液이 虧損이 되면 內熱이 발생하여 津液이 더욱 粘稠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馬·景岳의 견해처럼 足少陰腎經을 補하여 滋陰하는 治法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譯】

목구멍이 乾燥하고 입안에 熱이 있어 阿膠처럼 끈적거리면 足少陰經을 取하여 치료한다.

第二節 膝中痛의 治療

【原文】

膝中痛엔 取犢鼻호대 以員利鍼으로 發而間之요 鍼大如鼈니 刺膝無疑라

【較註】

[1] 膝中痛 取犢鼻 以員利鍼 發而間之 鍼大如鼈 刺膝無疑

楊·馬는 “膝中痛은 마땅히 足陽明胃經의 犢鼻穴을 취하여 刺鍼한다. 그 사용하는 鍼은 제 穴으로 員利鍼이니 반드시 그 鍼을 뽑고 다시 사이를 두고 刺鍼하여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이 鍼은 鼈鍼에서 法을 취하니 그 끝은 약간 크고 鍼身은 오히려 작아서 깊게 刺入할 수 있다. 길이는 一寸 六分이니 무릎에 刺鍼하는 데 의심

이 없다.”¹²⁾고 하였다.

【國譯】

膝中痛에는 犢鼻를 取穴하되 員利鍼을 사용하여 刺鍼하고서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刺鍼한다. 鍼은 모양이 소 꼬리털과 같이 가늘고 길어서 膝中痛에 刺鍼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第三節 喉痺의 治療

【原文】

喉痺에 不能言하면 取足陽明이요 能言하면 取手陽明이라

【較註】

[1] 喉痺 不能言 取足陽明 能言 取手陽明

楊·馬는 “手陽明脈은 缺盆을 돌아 머리로 上行하고, 足陽明脈은 喉嚨을 돌아 缺盆에 들어가므로 喉痺에 능히 말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에 이 두 脈을 취하여 病을 치료한다.”¹³⁾고 하였고, 景岳은 “手足陽明의 脈이 모두 喉嚨을 循行하되, 말할 수 있는 자는 病이 輕하므로 위에서만 取하나 말할 수 없는 자는 重하므로 아래를 瀉하여야 한다.”¹⁴⁾고 하였다.

【國譯】

喉痺에 말할 수 없으면 足陽明經을, 말할 수 있으면 手陽明經을 取하여 치료한다.

第四節 瘧疾의 治療

12) 楊·犢鼻는 足陽明脈氣所發 故로 膝痛에 取之라 ◎馬: 膝中痛은 當取足陽明胃經之犢鼻穴하야 以刺之라 其所用之鍼은 則第六曰員利鍼者니 必發其鍼하고 而又間刺之하야 非止一次而已也라 此鍼은 取法平鼈鍼하니 微大其末하고 反小其身하야 令可深納이요 長一寸六分이니 刺膝에 用之無疑也라
13) ◎楊: 手陽明脈은 循缺盆하야 上頭하고 足陽明脈은 循喉嚨하야 入缺盆 故로 喉痺能言不能言에 取此二脈하야 療主病者也라 ○馬: 此는 言喉痺者는 當審其能言不能言하야 而分經以刺之也라 按此與下共三節은 皆取之手足陽明二經이라
14) 景岳: 手足陽明之脈이 皆循喉嚨이로대 能言者는 輕하니 但取之上이나 不能言者는 重하니 當瀉其下也라

【原文】

瘡에 不渴하고 間日而作하면 取足陽明¹⁾이요 渴而日作²⁾하면 取手陽明³⁾이라

【校勘】

- 1) 取足陽明: 『素問』第三十六「刺瘡篇」, 『太素』卷二十五「十二瘡」에는 '刺足太陽'으로 되어 있다.
- 2) 渴而日作: 『甲乙』卷七 第五, 『素問』第三十六「刺瘡篇」, 『太素』卷二十五「十二瘡」에는 '渴而間日作'으로 되어 있다.
- 3) 取手陽明: 『甲乙』卷七 第五에는 '取手少陽'으로, 『素問』第三十六「刺瘡篇」, 『太素』卷二十五「十二瘡」에는 '刺足少陽'으로 되어 있다.

【較註】

【1】瘡 不渴 間日而作 取足陽明 渴而日作 取手陽明

楊張은 “瘡氣가 經絡을 따라 沈潛해서 내부로 侵入하여 하루걸러 발작하는 자는 邪氣가 깊어 머물러 안으로 陰에 薄하므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足陽明의 脈은 胃에 屬하고 脾에 絡하며 地氣에 응하여 아래쪽에 있어 그 길이 멀기 때문에 하루걸러 발작하고, 땅은 陰이므로 不渴한다. 手陽明의 脈은 大腸에 屬하고 肺에 絡하며 天氣에 응하여 위에 있어 그 길이 가깝기 때

문에 날마다 발작하고, 하늘은 陽이므로 渴한다. 沈亮宸이 『素問·瘡論』에 間日은 邪氣가 衛氣와 더불어 六府에 침입하면 때로는 相失하는 경우가 있어서 相得함이 없으므로 여러 날을 쉬고 비로소 발작한다고 했다. 무릇 手陽明은 肺의 府이고, 手太陽은 心의 府이며 手少陽은 心包絡의 府이니 이 三府는 主氣하고 主火하여 上에 應하므로 渴하며 날마다 발작한다. 足陽明은 脾의 府이고, 足太陽은 胃의 府이며 足少陽은 肝의 府이니 이 三府는 主血하고 主水하여 아래에 있으므로 渴하지 않으며 하루걸러 발작한다. 오직 手足陽明만을 취하는 것은 몸의 절반 이상은 手陽明이 모두 主之하고 몸의 절반 이하는 足陽明이 모두 主之하기 때문이다.”고 했다.¹⁵⁾고 하였고, 景岳은 『素問·刺瘡篇』에 ‘瘡疾에 渴症이 없고 하루걸러 發作하면 足太陽을 刺鍼하고 渴症이 있으면서 하루걸러 發作하면 足少陽을 刺鍼한다.’고 했다.¹⁶⁾고 하였고, 廓은 ‘瘡疾에 걸려서 口渴이 없고 매번 隔日에 한 번씩 발작하면 膻堂 足陽明의 穴位를 취하여 刺鍼해서 治療하고 만약 口渴이 있으면서 隔日에 한 번씩 발작하면 膻堂 手陽明經의 穴位를 취해서 鍼으로 治療한다.’¹⁷⁾고 하였다.

【考察】

1. ‘足陽明’에 대하여 『素問』과 『太素』卷二十五「十二瘡」에는 ‘足太陽’으로 되어 있으며, 『靈樞』本篇과 『太素』卷三十「刺瘡節度」

15) 楊: 瘡에 不渴이면 取足陽明이요 渴하면 取手陽明이니 皆取所主輸라 ●張: 瘡氣가 隨經絡하여 沈以內薄하여 間日而作者는 其氣가 舍深內薄於陰하여 而不得出이라 足陽明之脈은 屬胃絡脾하며 應地氣之在下하여 其道遠 故로 間日而作이요 地爲陰 故로 不渴이라 手陽明之脈은 屬大腸絡肺하며 應天氣之在上하여 其道近 故로 日作이요 天爲陽 故로 渴也라 沈亮宸이 曰按컨대 素問瘡論에 云其間日者는 邪氣가 與衛氣로 客於六府하여 而有時相失하여 不能相得 故로 休數日乃作이라하니라 夫手陽明者는 肺之府요 手太陽者는 心之府요 手少陽者는 心主包絡之府니 此三府者는 主氣主火하여 而應於上 故로 渴而日作이라 足陽明者는 脾之府요 足太陽者는 胃之府요 足少陽者는 肝之府니 此三府者는 主血主水하여 而在下 故로 不渴而間日作이라 獨取手足陽明者는 身半以上은 手陽明이 皆主之요 身半以下는 足陽明이 皆主之라하니라

16) 景岳: 刺瘡論에 曰瘡에 不渴하고 間日而作하면 刺足太陽이요 渴而間日作하면 刺足少陽이라하니라

17) 廓: 患瘡疾에 口不渴하고 每隔一日發作一次면 治療應取足陽明의 穴位進行針刺요 如有口渴現象而隔日發作一次의 이면 就應取手陽明經의 穴位進行針治라

等에는 ‘足陽明’으로 기재되어 치료하는 經絡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手陽明’에 대하여 『甲乙』에는 ‘手少陽’으로, 『素問』과 『太素』 卷二十五 「十二瘧」에는 ‘足少陽’으로 되어 있으며, 『靈樞』本篇과 『太素』 卷三十 「刺瘧節度」等에는 ‘手陽明’으로 기재되어 치료하는 經絡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太素』 卷二十五 「十二瘧」에 楊이 注하기를 ‘寒瘧’이라고 하여 구분하였으니 앞으로 더욱 研究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渴而日作’에 대하여 廊은 ‘間’자를 보충해야 한다고 했는데, 『甲乙』, 『素問·刺瘧』, 『太素·十二瘧』에는 ‘渴而間日作’으로 되어 있으나, 『太素·刺瘧節度』와 以後의 書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轉寫過程에서 ‘間’字가 脫簡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譯】

瘧疾에 渴症이 없으면서 하루걸러 發作하면 足陽明經을, 渴症이 있으면서 하루걸러 發作하면 手陽明經을 取하여 치료한다.

第五節 齒痛의 治療

【原文】

齒痛에 不惡⁽¹⁾淸飲하면 取足陽明이요 惡淸飲하면 取手陽明이라

【字句解】

(1) 惡 : 畏惡也, 厭惡也, 싫어할 오.

【較註】

【1】 齒痛 不惡淸飲 取足陽明 惡淸飲 取手陽明

楊景岳은 “手足陽明의 脈이 모두 齒中으로 들어가나 胃經은 實熱이 많으므로 찬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足陽明을 瀉하고 大腸經은 虛寒이 많으므로 찬 음식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땅히 手陽明을 補한다.¹⁸⁾”고 하였고, 張은 “手足陽明의 脈은 上下의 齒牙에 두루 連絡되나 足陽明은 悍熱之氣를 주관하므로 찬 음식을 싫어하지 않고 手陽明은 淸秋之氣를 주관하므로 찬 음식을 싫어한다.¹⁹⁾”고 하였다.

【國譯】

齒痛에 찬 음식을 싫어하지 않으면 足陽明經을, 찬 음식을 싫어하면 手陽明經을 取하여 치료한다.

第六節 耳聾의 治療

【原文】

聾而不痛者는 取足少陽이요 聾而痛者는 取手陽明이라

【較註】

【1】 聾而不痛者 取足少陽 聾而痛者 取手陽明

楊馬는 “足少陽經의 正經은 귀로 들어가고, 手陽明經의 絡脈도 귀로 들어간다. 足少陽經은 骨을 主하여 귀를 이롭게 하므로 취하고, 手陽

18) 楊: 上齒는 雖痛이라도 以足陽明穀氣 故로 飲不惡冷하니 可取足陽明이요 下齒痛은 取手陽明也라 ●景岳: 手足陽明之 脈이 皆入齒中이나 然이나 胃經은 多實熱 故로 不畏寒飲者는 當寫足陽明이요 大腸經은 多虛寒 故로 畏寒飲者는 當補手陽明也라

19) 張: 手足陽明之脈은 徧絡於上下之齒호대 足陽明은 主悍熱之氣 故로 不惡寒飲이요 手陽明은 主淸秋之氣 故로 惡寒飲이라

明經은 氣를 主하여 귀에 이롭게 하므로 통증이 취한다.²⁰⁾”고 하였고, 張은 “手足三陽의 脈이 모두 귀의 前後에 連絡되어 있어 耳中으로 들어가지만, 手少陽은 三焦의 相火를 主宰하므로 耳聾하며 痛症이 있다. 따라서 ‘手陽明’은 ‘手少陽’으로 고쳐야 한다.²¹⁾”고 하였다.

【國譯】

耳聾하며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足少陽經을, 耳聾하며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手陽明經을 取하여 치료한다.

第七節 衄血의 治療

【原文】

衄而不止에 衄血流면 取足太陽이요 衄血이면 取手太陽이라 不已면 刺宛骨¹⁾이요 不不已²⁾면 刺腦中出血이라

【校勘】

- 1) 刺宛骨: 『太素』卷三十 「衄血」, 『總錄』卷一百九十三 「治鼻疾灸刺法」에는 ‘刺腕骨下’로, 『甲乙』卷十二 第七에는 ‘刺腕骨’로, 『類經』卷二十一 「針刺類刺頭項七竅病」, 『合編』에는 ‘刺宛骨下’로 되어있다.
- 2) 不不已: 『太素』卷三十 「衄血」, 『甲乙』卷十二 第七, 『總錄』卷一百九十三 「治鼻疾灸刺法」, 『類經』卷二十一 「針刺類刺頭項七竅病」

』, 『合編』에는 ‘不已’로 되어있다.

【較註】

【1】 衄而不止 衄血流 取足太陽 衄血 取手太陽 不已 刺宛骨 不不已 刺腦中出血

楊은 “腕骨은 手腕關節 앞 起骨이니 完骨이라 이름한 것이고 손목이 아니다.²²⁾”고 하였고, 馬는 “腕骨下는 곧 手少陰心經의 通里穴이니 바로 心과 小腸은 表裏가 되기 때문이다.²³⁾”고 하였고, 景岳은 “宛骨下는 곧 手太陽의 腕骨穴이고, 腦中出血은 곧 足太陽의 委中穴이다.²⁴⁾”고 하였고, 張은 “手足太陽은 코 위에서 交絡하는데, 足太陽은 主水하므로 衄血이 흐르고, 手太陽은 主火하므로 衄血이 흐르지 않는다. 이는 邪氣가 皮毛의 氣分에 이르러 絡脈에 逼迫함이다. 그러므로 手足太陽을 취하여 行氣시키고 낮지 않으면 腕骨下의 手經脈에 刺鍼하고 낮지 않으면 腦中の 足經脈에 刺鍼한다.²⁵⁾”고 하였고, 黃은 “衄血은 血塊이고, 宛骨은 耳後高骨(乳樣突起)이다.²⁶⁾”고 하였다.

【考察】

1. ‘宛骨’에 대하여 『太素』, 『聖濟總錄』에는 ‘腕骨下’로, 『甲乙』에는 ‘腕骨’로, 『類經』, 『合編』에는 ‘宛骨下’로 되어 있는데, 『校釋』에서 ‘宛’은 ‘腕’과 동일한 것이며, ‘宛骨下’는 手太陽小腸經의 腕骨穴을 지칭한 것이라고

20) 楊: 足少陽正經은 入耳하고 手陽明絡脈도 入耳라 足少陽은 主骨益耳 故로 取之也요 手陽明은 主氣益耳 故로 痛取之也라 ○馬: 此는 言耳聾者는 當審其痛與不痛하여 而分經以刺之也라
 21) 張: 手足三陽之脈이 皆絡於耳之前後하여 入耳中이나 手少陽은 秉三焦之相火 故로 聾而痛이니 手陽明은 當作手少陽이라
 22) 楊: 腕骨은 手腕前起骨이니 名完骨이요 非腕也라
 23) 馬: 其腕骨下는 卽手少陰心經之通里穴이니 正以心與小腸이 爲表裏也라
 24) 景岳: 宛骨下는 卽手太陽之腕骨穴이요 腦中出血은 卽足太陽之委中穴也라
 25) 張: 手足太陽之脈은 交絡於鼻上호대 足太陽은 主水 故로 衄血流요 手太陽은 主火 故로 衄血而不流라 此는 邪薄於皮毛之氣分하여 而迫於絡脈也라 故로 取手足太陽하여 以行氣요 不已면 刺手之經脈於腕骨下하고 不已면 刺足之經脈於腦中이라
 26) 黃: 衄血은 血塊요 宛骨은 耳後高骨也라

하였으며, 廓도 ‘宛’은 마땅히 『太素』에 의거하여 ‘腕’이라 고쳐야하며, 손목 앞의 起骨을 完骨이라 이름하는데, 이 ‘宛骨’이나 혹은 ‘完’을 ‘宛’으로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 ‘腕骨’에 대하여 楊은 ‘完骨’로, 馬는 ‘手少陰心經의 通里穴’로, 景岳·廓·『校釋』·『白話』에는 ‘手太陽小腸經의 腕骨穴’로, 張은 ‘腕骨下의 手經脈’으로, 黃은 ‘耳後高骨(乳樣突起)’로 보았는데, 廓·『校釋』·『白話』에서 手太陽小腸經의 腕骨穴로 보아야한다고 하였다. 문맥상 파악하건대 앞에서 手太陽을 취한다고 하였으므로 ‘手太陽小腸經의 腕骨穴’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 실제 임상에서 파악해볼 때도 張의 見解는 너무 광범위하며, 楊과 黃의 見解처럼 完骨이나 耳後高骨은 ‘腕骨’을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手少陰心經의 通里穴은 그 穴性이 安心寧神하고 熄風和營하여 精神的, 心理的인 要因으로 인한 衄血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本文의 內容으로 미뤄볼 때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腕骨穴의 穴性이 太陽經의 邪氣를 疏散시키므로, 臨床側面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不已’에 대하여 『太素』·『甲乙』·『類經』·『合編』에는 ‘不已’로 되어있는데, ‘不’은 衍文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譯】

衄血이 그치지 않는 病症에 덩어리진 피가 많이 흐르면 足太陽經을, 적게 흐르면 手太陽經을 취하여 치료한다. 낫지 않으면 腕骨을 刺鍼하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腦中에 刺鍼하여 出血시킨다.

第八節 腰痛의 治療

【原文】

腰痛에 痛上寒하면 取足太陽陽明¹⁾이요 痛上熱하면 取足厥陰이요 不可以俛仰⁽¹⁾하면 取足少陽²⁾이요 中熱而喘하면 取足少陰과 腦中血絡³⁾이라

【校勘】

- 1) 取足太陽陽明: 『素問·刺腰痛篇』·『總錄』 卷一百九十四 「治腰痛灸刺法」에는 ‘刺足太陽陽明’으로, 『太素』 卷三十 「腰痛」에는 ‘取足太陽’으로 되어있다.
- 2) 不可以俛仰 取足少陽: 『甲乙』 卷九 第八에는 ‘不可以俯仰 取足少陽’으로, 『太素』 卷三十 「腰痛」에는 ‘不可以俛仰 取足太陽’으로 되어있으며, 『總錄』 卷一百九十四 「治腰痛灸刺法」에는 이 글자가 없다.
- 3) 腦中血絡: 『素問·刺腰痛篇』·『總錄』 卷一百九十四 「治腰痛灸刺法」에는 ‘刺郄中出血’로 되어있다.

【字句解】

- (1) 俛仰(부양): 굽어봄과 우러러봄. 俛; 숙일부, 仰; 우러를 양.

【較註】

- [1] 腰痛 痛上寒 取足太陽陽明 痛上熱 取足厥陰 不可以俛仰 取足少陽

楊은 “腰痛에 上熱하면 마땅히 허리의 足太陽과 足陽明脈을 補하고, 腰痛에 上寒하면 마땅히 허리의 足厥陰脈을 瀉해야 한다. 足少陽은 機關을 주관하니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면 足少陽을

취한다.²⁷⁾”고 하였고, 景岳은 “上寒上熱은 모두 上體를 말함이다. 寒하면 陽經에 刺入하여 陽分의 陰邪를 去하고 熱하면 厥陰에 刺入하여 陰中の 風熱을 去한다. 少陽의 脈은 身體의 兩側으로 運行하므로 숙이고 쳐들지 못할 때 마땅히 刺鍼한다.²⁸⁾”고 하였다.

[2] 中熱而喘 取足少陰 膈中血絡

楊·黃은 “腰痛에 中熱하여 喘息처럼 氣가 動하면 가히 足少陰을 취하여 郄中에서 出血해야 한다.²⁹⁾”고 하였고, 馬·景岳은 “中熱하며 喘하는 것은 熱이 中焦, 上焦의 二焦에 있는 것이다. 足少陰을 취하는 것은 水를 장성하게 하여 制火하기 위함이다. 膈中血絡은 곧 足太陽의 委中穴이니 取之하면 火를 瀉할 수 있다.³⁰⁾”고 하였다.

【考 察】

1. ‘取足太陽陽明’에 대하여 『太素』에는 ‘取足太陽’으로 되어있으나, 다른 문헌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錯簡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不可以俛仰取足少陽’에 대하여 『太素』에는 앞 절과 뒷 절에 각각 ‘不可以俛仰取足太陽’과 ‘不可以俛仰刺足少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素問·刺腰痛篇』에도 ‘如折不可以俛仰不可舉刺足太陽’이라 하고, ‘不可以俛仰刺足少陽’이라 하여 ‘不可以俛仰’을 치료하는 經絡이 동일하지 않다. 이는 『素問·刺腰痛篇』의 ‘少陽令人腰痛 如以鍼刺其皮中 循循然不可以俛仰 不可以顧 刺少陽成骨之端

出血 成骨在膝外廉之骨獨起者 夏無見血’과 ‘衡絡之脉 令人腰痛 不可以俛仰 仰則恐仆 得之舉重傷腰 衡絡絕 惡血歸之 刺之在郄陽筋之間 上郄數寸 衡居爲二病出血’이라 한 것과 『素問·厥論篇』에서는 ‘手太陽厥逆 耳聾泣出 項不可以顧 腰不可以俛仰 治主病者’라고 한 것처럼 ‘不可以俛仰’의 원인이 다르고, 수반되는 症狀도 달라지므로 치료하는 經絡이 달라지니 原因 및 兼症을 참고하여 經絡을 취하고 치료에 임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3. ‘膈中血絡’에 대하여 楊과 黃은 ‘陰谷’으로, 馬와 景岳은 ‘委中’으로 張은 ‘曲泉’으로 보았는데, 陰谷은 足少陰腎經의 合穴로 穴性은 滋腎清熱하고 疏泄降氣하며, 曲泉은 足厥陰肝經의 合穴로 舒筋活絡, 泄肝火, 清濕熱하며, 委中은 足太陽膀胱經의 合穴로 清血泄熱하고 舒筋通絡하며 利腰膝하므로, 내부에 熱이 있어 呼吸喘促한 경우에 原因에 따라 세 穴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本文에서는 腰痛과 中熱과 呼吸喘促이 모두 겸하여 나타난 증상이므로 廓·『校釋』·『白話』의 意見과 같이 膝窩橫紋筋上的 代表穴인 委中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 譯】

腰痛에 痛處의 上部가 차면 足太陽陽明經을, 痛處의 上部가 熱하면 足厥陰經을 取하여 치료한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면 足少陽經

27) 楊: 腰痛에 上熱하면 補當腰足太陽足陽明脈이요 腰痛에 上寒하면 瀉當腰足厥陰脈이라 足少陽은 主機關하니 不可俛仰하면 取足少陽이라
 28) 景岳: 上寒上熱은 皆以上體言也라 寒하면 刺陽經하야 去陽分之陰邪하고 熱하면 刺厥陰하야 去陰中之風熱也라 少陽脈은 行身之兩側 故로 俛仰不利者는 當刺之라
 29) 楊: 腰痛에 中熱하야 □如喘氣動하면 可取足少陰하야 郄中出血也라 ○黃: 足少陰膈中血絡은 陰谷穴也라
 30) 馬: 此는 言熱喘者에 而有刺之之法也라 足少陰은 腎經也라 膈中血絡은 足太陽膀胱經委中穴也라 ●景岳: 中熱而喘은 熱이 在中上二焦也라 取足少陰者는 壯水하야 以制火也라 膈中血絡은 卽足太陽委中穴이니 取之면 可以瀉火라

을,腰痛에 中熱로 숨이 차면 足少陰經과 腦中の血絡을 取하여 치료한다.

第九節 怒의 治療

【原文】

喜怒而不欲食하고 言益小면 刺足太陰이요 怒而多言이면 刺足少陽¹⁾이라

【校勘】

1) 刺足少陽: 『甲乙』卷九 第五에는 ‘刺足少陰’으로 되어있다.

【較註】

【1】喜怒而不欲食 言益小 刺足太陰 怒而多言 刺足少陽

馬:『校釋』에는 “쉽게 怒하면서 음식 생각이 없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木이 盛하여 土를 克한 것으로 肝이 强하고 脾가 弱한 것이니 應당 足太陰脾經의 穴位에 刺鍼하고 쉽게 怒하면서 또한 말이 많은 것은 肝膽의 氣가 盛한 것이니 應당 足少陽膽經의 穴位에 刺鍼하여 치료한다.”³¹⁾고 하였다.

【考察】

1. 第二章 九節의 ‘刺足少陽’은 『甲乙』에 ‘刺足少陰’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轉寫過程의 誤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譯】

31) ○馬: 此는 言善怒者는 當審其欲食不食과 難言多言하여 而分經以刺之也라 ◎校釋: 容易發怒而不思飲食하고 而且不願多說話的은 是木盛克土하여 肝强脾弱이니 應刺足太陰脾經穴位요 易怒而且說話多的是 是肝膽氣盛이니 應刺足少陽膽經穴位爲治라

32) 馬: 手陽明은 當是商陽穴이요 頰之盛脈은 是胃經頰車穴이라

33) 景岳: 頰은 鬢前兩太陽也니 手陽明之別者가 入耳하여 合於宗脈하고 正出兩頰之間 故로 當刺之라 與頰之盛脈을 出血이니 卽鬢前之血絡이라

자주 怒하면서 먹고자 하지 않고 말이 점점 적어지면 足太陰經을, 怒하면서 말이 많으면 足少陽經에 刺鍼한다.

第十節 頰痛의 治療

【原文】

頰¹⁾⁽¹⁾痛에 刺手陽明하고 與頰¹⁾之盛脈을 出血이라

【校勘】

1) 頰: 『太素』卷三十 「頰痛」에는 ‘頰’으로, 甲乙』卷九 第一에는 ‘頰’으로 되어있다.

【字句解】

(1) 頰(합): 아래턱을 말한다. 頰과 통용된다.

【較註】

【1】頰痛 刺手陽明 與頰之盛脈出血

馬는 “手陽明은 商陽穴이고, 頰之盛脈은 胃經의 頰車穴이다.”³²⁾고 하였고, 景岳은 “頰은 귀밑 머리 앞의 兩太陽이니 手陽明의 別者가 귀로 들어가 宗脈에 결합하고 바로 兩頰之間으로 나오므로 마땅히 刺鍼한다. 頰之盛脈을 출혈시키니 곧 귀밑 머리 앞의 血絡이다.”³³⁾고 하였고, 張은 “이는 手足陽明의 經氣가 厥逆하면 모두 頰痛이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手陽明의 脈은 缺盆으로 나아가서 목으로 上行하고 頰을 관통한다. 足陽明의 氣는 孔竅로 上行하여 眼系를 따라 頰으로 나와 客主人으로 下行하고 牙車를 따라 陽

明과 결합하고 함께 人迎으로 下行한다. 頤은 頤의 아래, 人迎의 위에 있으니 이는 (邪氣가) 陽明의 氣를 병들게 하고 陽明의 經에 下合하여 頤痛이 된다. 그러므로 足陽明을 취한다고 하지 않고 頤之盛脈이라고 한 것이니 대개 頤에서 氣逆하여 盛脈하게 되는 것이다.³⁴⁾”고 하였다. 丹波는 “張景岳은 頤을 귀밑머리 앞의 兩太陽이라고 하였으니 어떤 근거인지 알 수 없다.³⁵⁾”고 하였다.

【考察】

1. ‘頤之盛脈’을 馬는 頤車穴로, 景岳은 兩太陽으로, 張은 陽明經의 循行部位로 보았으나, 張의 見解와 같이 전체적으로 넓게 보는 것보다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景岳의 兩太陽 部位는 頤의 範疇를 벗어나므로 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頤痛’의 治療法을 살펴볼 때 ‘手陽明’을 馬는 ‘商陽穴’로 張은 ‘經絡’으로 보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實際 臨床에서 단순히 하나의 穴을 취하여 치료하기보다 張의 見解처럼 循行經絡에 따라 여러 穴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음으로 보아 ‘經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譯】

頤痛에 手陽明經을 刺鍼하고 아울러 아래턱의 盛한 脈을 出血시킨다.

第十一節 項痛的 治療

【原文】

項痛¹⁾에 不可俛仰이면 刺足太陽이요 不可以 顛면 刺手太陽也라

【校勘】

1) 項痛: 『甲乙』卷九 第一에는 ‘頭項’으로 되어있다.

【較註】

[1] 項痛 不可俛仰 刺足太陽 不可以顛 刺手太陽也

楊張은 “足太陽의 脈은 脊椎를 끼고 腰中에 이르니 그러므로 숙이고 쳐들지 못하는 자는 足太陽을 취하고 手太陽의 脈은 肩胛을 감싸므로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手太陽을 취한다.³⁶⁾”고 하였다.

【國譯】

項痛에 고개를 숙이거나 쳐들지 못하면 足太陽經을, 돌아보지 못하면 手太陽經을 刺鍼한다.

第三章 腹滿의 治療

【原文】

小腹滿大하야 上走胃하고 至心하며 漸漸身時 寒熱하고 小便不利하면 取足厥陰이요 腹滿에 大便不利하고 腹大하고 亦上走胸噎하야 喘息喝

34) 張: 此는 言手足陽明之經氣가 厥逆하면 皆能爲頤痛也라 手陽明之脈은 從缺盆하야 上頸하고 貫頤이라 足陽明之氣는 上走空竅하야 循眼系하야 出頤하야 下客主人하고 循牙車하야 合陽明하고 并下人迎이라 頤은 在頤之下하며 人迎之上하니 此는 病陽明之氣하고 下合陽明之經하야 而爲頤痛이라 故로 不曰取足陽明하고 而曰頤之盛脈이니 蓋氣逆於頤하야 而致脈盛也라

35) 丹波: 張이 以頤爲鬢前兩太陽이라하니 未知何據라

36) 楊: 足太陽脈이 行項 故로 不可俛仰에 取之요 手太陽脈이 行項左右 故로 不得顛에 取之也라 ●張: 足太陽之脈이 挾脊하고 抵腰中 故로 不可俛仰者는 取足太陽이요 手太陽之脈이 繞肩胛 故로 不可以顛者는 取手太陽也라

喝⁽¹⁾然하면 取足少陰이요 腹滿에 食不化하고 腹嚮嚮⁽²⁾然하고 不能大便하면 取足太陰⁽¹⁾이라

【校 勘】

1) 取足太陰: 『甲乙』卷九 第七에는 ‘取足太陽’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喝喝(갈갈): 숨이 급하게 헐떡거리는 모양.
- (2) 嚮嚮(향향): 뱃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말한다.

【較 註】

【1】小腹滿大 上走胃 至心 渐渐身時寒熱 小便不利 取足厥陰

楊은 “水氣가 少腹에서 結聚하여 위로 올라가 心下에 도달하고 沍沍하게 惡寒寒熱하고 小便不利하고 下熱하니 이것은 足厥陰이 연유한 것이므로 그 輸穴을 취한다.”³⁷⁾고 하였고, 景岳은 “肝經의 脈은 小腹에 이르러 胃를 끼고 그 分支는 肝으로 나아가고 別支는 胸膈을 관통하므로 病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足厥陰經을 취하여 刺鍼한다.”³⁸⁾고 하였다.

【2】腹滿 大便不利 腹大 亦上走胸噎 喘息喝喝然 取足少陰

楊은 “이는 모두 足少陰脈이 運行하는 곳이며

로 그 脈의 輸穴을 취한다. 少陰이 少陽으로 되어있는 板本도 있다.”³⁹⁾고 하였고, 馬는 “大腹이 脹滿한 者가 그득한 것이 위로 胸部와 咽部까지 走向하여 胃와 心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喘息하여 喝喝然하니 이런 경우엔 足少陰腎經을 취하여 刺鍼하여야 한다.”⁴⁰⁾고 하였고, 景岳은 “腎은 二陰에 開竅하고 그 經脈은 腎으로 나아가며 위로 肝과 橫膈膜을 관통하여 肺中으로 들어가 喉嚨으로 나아가므로 그 病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足少陰經을 취하여 刺鍼한다. 喝喝은 호흡이 급박한 모양이다.”⁴¹⁾고 하였다.

【3】腹滿 食不化 腹嚮嚮然 不能大便 取足太陰

楊景岳은 “脾가 그 職分을 잃으면 곧 음식이 소화될 수 없고 腹滿하며 소리가 있고, 腹中에서 氣滯하며 大便이 不調하니 마땅히 足太陰經을 취하여 刺鍼한다.”⁴²⁾고 하였고, 馬는 “또한 大腹滿이 있는 자는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腹中에서 嚮嚮然하여 氣가 흠어지게 되면 곧 마땅히 足太陰脾經을 취하여 刺鍼한다.”⁴³⁾고 하였다.

【考 察】

- 1. ‘不能大便 取足太陰’에서 『甲乙』에는 ‘足太陰’이 ‘足太陽’으로 되어 있는데, 足太陰脾經의 症候는 舌本僵硬 또는 疼痛, 飲食不下, 嘔吐, 噎氣, 腹脹, 胃脘痛, 便溏, 또는

37) 楊: 水氣가 聚於少腹하야 上走至於心下하고 沍沍하고 惡寒寒熱하고 小便不利하고 下熱也니 是는 足厥陰所由 故로 取其輸穴也라

38) 景岳: 肝經之脈은 抵小腹하야 挾胃하고 其支者는 從肝하고 別은 貫膈 故로 爲病如此하니 當取足厥陰經하야 以刺之라 漸은 泝泝이라

39) 楊: 此는 皆足少陰脈所行之處 故로 取其脈之輸穴라 有本少陰爲少陽이라

40) 馬: 大腹滿者가 其滿大亦上走胸咽하야 不止胃與心也 故로 喘息喝喝然하니 此則當取足少陰腎經하야 以刺之라

41) 景岳: 腎開竅於二陰하고 其經脈은 從腎하야 上貫肝膈하야 入肺中하야 循喉嚨이라 故로 其爲病如此하니 當取足少陰經하야 以刺之라 喝喝은 喘急貌라

42) 楊: 腹滿에 食不化하고 腹虛脹하고 不大便하면 皆足太陰脈所主 故로 取之輸穴也라 ●景岳: 脾失其職하면 則食不能化하고 腹滿而喝하고 氣滯於中하야 大便不調하니 當取足太陰經하야 以刺之라

43) 馬: 又有大腹滿者는 其所食不化하고 腹中嚮嚮然하야 而布氣하면 則當取足太陰脾經하야 以刺之라 然이나 凡大腹滿者는 其大便不利則一也라

泄瀉, 心煩, 水腫, 黃疸 및 經脈이 통과하는 곳에 腫脹이 생기는 것, 發冷, 足大趾의 機能障礙 등이고, 足太陽膀胱經의 症候는 頭痛, 目痛, 鼻衄, 項強, 腰脊痛, 關節屈伸不利, 臑窩·腓腸筋 및 足部の 疼痛, 痔瘡, 癩狂 등이므로, 病症으로 미루어 볼 때 『甲乙』의 ‘足太陽’은 轉寫科程의 誤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腹滿의 治療에 대하여 楊은 나타나는 症狀을 主治하는 經絡을 취해야 함을 論하였고, 馬는 大腹滿과 小腹滿으로 部位別로 구분하여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症狀이 다르며 그에 따라 治療하는 經絡이 다를 것을 말하였다. 또, 景岳은 症狀이 나타나는 부위를 順行하는 經絡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고, 張은 五臟의 氣가 傷하여 經絡이 厥絶하고 脈度가 통하지 않아 腹滿하게 되고 각 臟腑의 氣가 逆上하여 腹滿하게 되니 症狀을 살펴서 部位를 順行하는 經絡을 취해야 함을 強調하였는데, 諸家의 主張이 타당한 면이 있으나 여기서는 張과 같이 五臟의 氣가 傷하거나 혹은 厥逆하여 腹滿이 나타나므로 治療도 그에 遵行하여 經絡을 취한다고 보는 것이 文意上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譯】

小腹이 滿大한 것이 胃部로 올라가 心에 이르고, 추워하며 몸이 때에 따라 寒하며 熱하고 小便不利하면 足厥陰經을 取하여 治療한다. 腹滿에 大便이 원활하지 못하고 腹大하고 또한 가슴과 목구멍으로 올라가 숨이 차고 혈떡거리면 足少陰經을 取하여 治療한다. 腹滿에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헛배가 부르고 大便을 보지 못하면 足太陰經을 取하여 治療한다.

第四章 心痛의 治療

【原文】

心痛에 引腰脊하고 欲嘔하면 取足少陰이요 心痛에 腹脹齶齶⁽¹⁾然하고 大便不利하면 取足太陰이라 心痛에 引背하고 不得息하면 刺足少陰이요 不已면 取手少陽⁽¹⁾이라 心痛에 引小腹滿하고 上下無常處하고 便溲難하면 刺足厥陰이요 心痛에 但短氣不足以息하면 刺手太陰이라 心痛에 當九節刺之⁽²⁾호대 按已刺하고 按之⁽³⁾면 立已요 不已면 上下求之하여 得之立已라

【校勘】

- 1) 取手少陽: 『甲乙』 卷九 第二 『千金』 卷十三 第六 『總錄』 卷一百九十二 「治心腹灸刺法」에는 ‘取手少陰’으로 되어있다.
- 2) 當九節刺之: 『胡本』, 『周本』, 『統本』, 『金陵本』, 『藏本』, 『合編』에는 모두 ‘當九節次之’로, 『保命集』에는 ‘刺當九穴刺之’로 되어있다.
- 3) 按, 已刺按之: 『太素』 卷二十六 「厥心痛」에는 ‘不已刺按之’로 되어있으며, 『保命集』에는 이 다섯 글자가 없다. 『校釋』에는 ‘不已刺按之’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字句解】

- (1) 齶齶(색색): 막히고 걸끄러워 시원하지 않은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較註】

【1】心痛 引腰脊 欲嘔 取足少陰

景岳張은 “腰脊은 腎의 外府이며 腎과 胃는 戊癸로 相合하여 化하니, 心痛에 腰脊이 당기고 구토하고자 하는 자는 腎氣가 上逆하여 心痛이

된 것이니 마땅히 足少陰을 취한다.⁴⁴⁾”고 하였다.

[2] 心痛 腹脹奮奮然 大便不利 取足太陰

景岳「校釋」에는 “心痛에 배가 脹滿하고 大便 보는 것이 꺾끄러워 시원하지 않으면 足太陰脾經의 穴位를 취하여 刺鍼하여 치료한다.⁴⁵⁾”고 하였다.

[3] 心痛 引背 不得息 刺足少陰 不已 取手少陽

景岳은 “足少陰의 脈은 脊椎를 관통하므로 통증이 등까지 이르고 手少陽의 脈은 膻中에 있으므로 숨쉬기 어려울 때 마땅히 이 두 經을 刺鍼한다.⁴⁶⁾”고 하였고, 黃은 “心痛에 腰脊과 등이 당기는 자는 水가 火를 췌한 것이니 足少陰에 刺鍼하여 水를 瀉하고 手少陽을 취하여 火를 더한다.⁴⁷⁾”고 하였다.

[4] 心痛 引小腹滿 上下無常處 便澁難 刺足厥陰

景岳·張은 “足厥陰肝脈은 小腹에 이르러 別者가 횡격막을 관통하여 上行해서 肺에 注한다. 心痛이 小腹滿에 이르면 자는 厥陰의 經絡이 上逆한 것이다. 上下에 정해진 곳이 없고 大小변이 어려운 자는 厥陰의 氣가 逆한 것이다. 이는 經과 氣가 함께 逆上한 것이니 마땅히 足厥陰의

經에 刺鍼한다. 經脈이 통하면 곧 氣도 역시 疏通하며 利한다.⁴⁸⁾”고 하였다.

[5] 心痛 但短氣不足以息 刺手太陰

景岳·張은 “肺는 氣를 主하고 呼吸을 맡으며 心은 위로 肺와 연관되니 心痛에 단지 短氣만 있고 呼吸이 부족한 자는 단지 肺가 厥逆한 心痛이니 마땅히 手太陰에 刺鍼하여 肺氣의 厥逆을 소통시킨다.⁴⁹⁾”고 하였다.

[6] 心痛 當九節刺之 按已刺 按之 立已 不已 上下求之 得之立已

楊은 “『黃帝明堂經』에 ‘아홉 마디 아래 양쪽은 肝俞이고, 중앙은 筋縮이다.’고 하여 모두 心痛을 치료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나 『靈樞』에서 취하여 치료한다는 것은 이 마디를 刺鍼하고, 낮지 않으면 上下의 背輪穴에서 찾아서 그것을 취하여 心痛을 치료함을 말한 것이다.⁵⁰⁾”고 하였고, 馬는 “心痛이 있는 자는 그 통증에 마땅히 背部的 아홉번째 마디를 刺鍼하니 이에 督脈經의 筋縮穴이 있는 곳이다. 의당 먼저 按摩하고 이미 按摩했으면 刺鍼하고 刺鍼 후에 다시 按摩하면 그 통증이 마땅히 곧 낫는다. 만약 낮지 않으면 곧 위로 八椎와 十椎를 또다시 구하면 통증이 반드시 곧 낫는다.⁵¹⁾”고 하였고, 景岳「白話」에는 “일반적인 心痛病의 治療는 마땅히 第九

44) 景岳: 心痛而後引腰脊하고 前則欲嘔者는 此腎邪上逆也 故로 當取足少陰經하야 以刺之라 ◎張: 腰脊은 腎之外府也요 腎與胃는 戊癸合化니 心痛에 引腰脊而欲嘔者는 腎氣上逆하야 而爲心痛也니 當取之足少陰이라

45) 景岳: 奮奮은 滯滯貌라 此는 病在脾 故로 當取足太陰經하야 以刺之라 ◎校釋: 心痛에 腹脹滿하고 大便澁滯不爽하면 取足太陰脾經의 穴位하야 刺治라

46) ◎景岳: 足少陰之脈은 貫脊 故로 痛引於背요 手少陽之脈은 在膻中 故로 不得息에 宜刺此二經也라

47) 黃: 心痛에 引腰脊者는 水剋火也니 刺足少陰하야 以瀉水하고 取手少陽하야 以益火라

48) 景岳: 足厥陰之脈은 抵小腹하야 結於陰器하니 凡心痛而下引小腹者는 當刺之也라 ◎張: 足厥陰肝脈은 抵小腹하야 別貫膈하야 上注肺라 心痛에 引小腹滿者는 厥陰之經絡이 上逆也라 上下無定處하고 澁便難者는 厥陰之氣가 逆也라 此는 經氣並逆이니 當刺足厥陰之經이라 經脈通하면 則氣亦疏利矣라

49) 景岳: 肺主氣 故로 短氣者는 當刺手太陰이라 ◎張: 肺主氣而司呼吸하며 心系上連於肺하니 心痛에 但短氣不足以息者는 但逆在肺하야 而爲心痛也니 當刺手太陰하야 以通肺氣之逆이라

50) 楊: 明堂에 第九節下兩傍은 是肝俞요 中央은 是筋縮이라하야 皆不言療心痛이나 此經에 言療取之는 刺此節하고 不已 則於上下背輪尋之하야 有療心痛取之라

51) 馬: 有心痛者는 其痛當背第九節以刺之니 乃督脈經筋縮穴之處也라 宜先按之하고 按已而刺하고 刺後按之하면 其痛當立已라 如不已 則上而八椎와 下而十椎를 又復求之하면 其痛이 必立已矣라

椎下에 있는 筋縮穴을 刺鍼하니 먼저 穴位의 上部를 按摩하며 주무르고 刺鍼한 후에 다시 계속하여 按摩하며 주무르면 가히 곧 痛症이 그친다. 혹시 痛症이 그치지 않으면 모름지기 上肢나 혹은 下肢에 있는 手足의 陰陽 各經에서 本病과 관련이 있는 穴位를 찾아 配合하여 鍼治療하면 氣至感應이 아래로 도달한 후에 곧 痛症이 그친다.⁵²⁾”고 하였고, 張은 “이는 五種心痛이 藏氣의 上乘으로 인하여 痛症이 됨을 총괄하여 結論한 것이다. 次는 兪穴의 옆이니 九節次之는 肝兪 옆의 魂門이다. 肝은 魂을 藏하고 心은 神을 藏하여 서로 따라 往來出入하니 그러므로 魂門을 취하여 心氣를 통하게 한다. 按已而刺는 發針하고 다시 按摩導引하여 氣를 疏通시키므로 心痛이 바로 낫는다. 九節의 위는 이에 膈兪 옆인 膈關이고 아래는 膽兪의 옆인 陽綱이다. 心氣가 안쪽 횡격막으로 나아가다가 밖으로 통하니 그러므로 낫지 않으면 마땅히 위에서 구하여 心神을 통하게 하고 아래에서 구하여 魂氣를 퍼뜨린다. 得之는 그 氣를 얻음이다. 『金匱玉函』에 ‘經絡이 邪氣를 받아 藏府로 들어가면 안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다.’고 했다. 앞장의 厥心痛은 이에 五藏의 血脈이 相乘하는 까닭에 眞心痛의 死證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氣로 인하여 통증이 있으므로 按摩導引하면 곧 낫는다. 앞장에서 血脈을 刺한다는 것은 崑崙, 然谷, 魚際, 太淵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藏氣를 취한다는 것은 太陰, 厥陰, 少陰, 少陽을 말하는 것이다.⁵³⁾”고 하였고,

黃은 “當九節刺之는 督脈의 懸樞다. 上下求之는 위로는 脊中에서 구하고 아래로는 命門에서 구한다는 것이다.⁵⁴⁾”고 하였다.

【考 察】

1. ‘當九節刺之’에서 ‘九節’에 대하여 『保命集』에는 ‘九穴’로 되어있는데, 이는 轉寫過程의 誤植으로 보여진다. 대개의 醫家들은 九節을 督脈의 筋縮穴로 보지만, 특이하게 黃은 督脈의 懸樞穴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그 穴處가 第一二 腰椎間으로 十三椎下에 위치하고 있으니, 黃의 主張은 根據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九節은 督脈의 筋縮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刺之’에 대하여 『雜病篇』이 記載된 板本중에서 『黃校本』과 『宋板本』을 제외한 『胡本』, 『熊本』, 『周本』, 『統本』, 『金陵本』, 『藏本』에는 모두 ‘次之’로 記載되어 있으므로, ‘刺之’는 轉寫過程에서 나타난 ‘次之’의 誤植으로 보인다. 이에 의거하면 ‘九節次之’는 筋縮穴 옆의 肝兪로 파악할 수 있으나 張은 ‘次’를 ‘兪穴之旁也’라 하여 肝兪 옆의 魂門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研究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按已刺按之’에 대하여 『太素』에는 ‘不已刺按之’로 되어있으며, 『保命集』에는 이 다섯 글자가 없다. 또한, 『校釋』에는 ‘不已刺按之’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문맥상 『太素』

52) 景岳: 此는 總言刺心痛之法也라 九節은 卽督脈之筋縮穴이니 宜先按之하고 按已而刺하고 刺後復按之하면 其痛當立已요 如不已면 則上而手經과 下而足經을 求得其故而刺之하면 則立已矣라 ◎白話: 治療一般의 心痛病은 當在第九椎下의 筋縮穴하야 刺之니 先在穴位上 按摩하고 針刺之後에 再繼續按摩하면 可立即止痛이라 倘痛仍不止면 須在上肢或下肢의 手足陰陽各經하야 尋取于本病有關於穴位하야 配合針治하면 待針下得到感應後에 可立即止痛이라

53) 張: 此는 總結五種心痛이 因藏氣之上乘하야 以爲痛也라 次者는 兪穴之旁也니 九節次之者는 肝兪次旁之魂門也라 肝藏之魂하고 心藏之神하야 相隨而往來出入 故로 取之魂門하야 以通心氣라 按已而刺는 出鍼而復按之導引하야 氣之疏通 故로 心痛立已라 九節之上은 乃膈兪旁之膈關이요 下乃膽兪次之陽綱이라 心氣가 從內膈하야 而通於外 故로 不已면 當求之上하야 以通心神하고 求之下하야 以舒魂氣라 得之者는 得其氣也라 金匱玉函에 曰經絡受邪하야 入藏府하면 爲內所因이라하니라 前牽之厥心痛은 乃五藏之血脈相乘 故로 有眞心痛之死證이요 此는 因氣而痛 故로 按摩導引可立已也라 前牽刺血脈은 曰崑崙然谷魚際太淵이요 此取藏氣는 曰太陰厥陰少陰少陽이라

54) 黃: 當九節刺之는 督脈之懸樞也라 上下求之는 上求之脊中하고 下求之命門也라

』의 예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上下求之'에서 '上下'에 대하여 楊廓은 上下의 背腧穴로, 馬·『校釋』에는 八椎와 九椎로, 景岳·『白話』는 上下肢의 手足陰陽 各經으로, 張은 膈關과 陽綱으로, 黃은 脊中과 命門으로 보았으나, 文脈으로 살펴볼 때 楊과 廓의 見解와 같이 上下의 背腧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譯】

心痛에 腰脊이 당기고 嘔吐하려고 하면 足少陰經을, 心痛에 腹脹하여 답답하고 大便이 원활하지 못하면 足太陰經을 取하여 치료한다. 心痛에 등이 당기고 숨쉬기 어려우면 足少陰經을 취하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手少陽經을 取하여 치료한다. 心痛에 小腹이 그득하면서 당기고 痛症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大小便을 보기가 어려우면 足厥陰經에 刺鍼한다. 心痛에 오로지 숨이 짧고 呼吸이 곤란하기만 하면 手太陰經을 刺鍼한다. 心痛에는 마땅히 九節에 刺鍼하되 문지르고 나서 刺鍼하고 다시 문지르면 바로 낫고 만약 낫지 않으면 위아래를 치료하여 氣가 이르면 낫는다.

第五章 雜病的 治療

【原文】

顛痛엔 刺足陽明曲周⁽¹⁾動脈하야 見血하면 立已요 不已에 按人迎于經하면 立已라 氣逆上엔 刺膺中陷者와 與下胸動脈이라 腹痛엔 刺膺左右動脈하고 已刺按之하면 立已요 不已어든 刺氣街하고 已刺按之하면 立已라 痿厥엔 爲四末

惋⁽²⁾하고 乃疾解之를 日二요 不仁者라도 十日而知니 無休하야 病已止라 歲엔 以草刺鼻¹⁾하야 嚏하면 嚏而已요 無息而疾迎引之면 立已요 大驚之도 亦可已라

【校勘】

- 1) 歲以草刺鼻: 『太素』卷三十 「療噦」·『類經』卷二十二 「針刺類刺諸病諸痛」·『合編』에는 '噦以草刺鼻'로 되어있고, 『甲乙』卷十二 第一에는 '以草刺其鼻'로 되어있는데, 『校釋』·『白話』에는 '噦以草刺鼻'로 고쳐야한다고 하였다.

【字句解】

- (1) 曲周(곡주): 頰車穴에 해당되며 또한 曲隅라고도 한다.
- (2) 惋: 煩也, 悶也, 답답할 문.

【較註】

- [1] 顛痛 刺足陽明曲周動脈 見血 立已 不已 按人迎于經 立已

景岳은 “足陽明의 脈은 頰車를 따라 上行하여 귀 앞에 이르고 客主人을 지나서 髮際를 따라 額顛에 이른다. 그러므로 顛痛은 마땅히 曲周 곧 頰車를 刺鍼한다. 曲頰을 돌아 감싸기 때문에 曲周라 하였으니 血이 보이면 곧 낫는데, 만약 낫지 않으면 마땅히 本經에서 人迎을 按하여 淺刺하면 곧 낫는다.⁵⁵⁾”고 하였다.

- [2] 氣逆上 刺膺中陷者 與下胸動脈

楊廓은 “膺中陷者是 足陽明胃經의 屋翳穴을 지칭한다. 생각해보건대 『銅人針灸腧穴圖經』卷四 「膺腧第三行」에 ‘屋翳는 咳逆上氣를 치료한

55) 景岳: 足陽明之脈은 循頰車하야 上耳前하고 過客主人하야 循髮際하야 至額顛라 故로 顛痛者는 當刺曲周니 卽頰車也라 以其周繞曲頰 故로 曰曲周니 見血立已요 如不已면 當按人迎於本經하야 而淺刺之하면 可立已也라

다.'고 했다. 옛 注에는 膺窗穴을 지칭한다고 한 것이 있으나 屋翳만큼 부합되지 않는다. 下胸動脈은 楊上善이 '胸下動脈은 中府니 견주어 헤아려 취한다.'고 했다.⁵⁶⁾고 하였고, 馬는 "이는 氣逆에 刺鍼하는 법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무릇 氣逆은 가슴의 陷沒部를 上刺하니 곧 足陽明胃經의 膺窗穴이다. 下胸部 앞쪽의 動脈은 마땅히 任脈經의 膻中穴이다. 대개 가운데를 胸이라 하고 胸의 옆은 膺이 된다. 膺窓은 巨骨下 五寸八分の 凹陷處에 있으며 중앙에서 좌우로 각 四寸이니 鍼은 四分을 놓고 뜸은 五壯을 뜬다. 膻中은 양 乳頭 사이의 凹陷處니 氣病은 여기를 치료하고, 施鍼을 禁하고 뜸은 七壯을 뜬다. 또 '鍼은 三分을 놓는다'고 했다.⁵⁷⁾고 하였고, 丹波는 "膻中에 動脈이 없고 中府는 下胸에 있지 않으니 의심이 된다."⁵⁸⁾고 하였다.

[3] 腹痛 刺膻左右動脈 已刺按之 立已 不已 刺氣街 已刺按之 立已

楊은 "腹痛은 足陽明脈이 주관하므로 膻의 左右動脈은 足陽明脈의 搏動이다. 氣街도 足陽明脈이므로 낫지 않으면 이곳을 취하여 치료한다."⁵⁹⁾고 하였고, 景岳은 "膻部의 左右動脈은 足少陰의 肓俞와 足陽明의 天樞이니 모두 腹痛을 主之한다. 氣街는 곧 足陽明의 氣衝이다."⁶⁰⁾고

하였고, 丹波는 "天樞와 肓俞 두穴에 動脈이 있다는 말이 없었으니 의심이 든다."⁶¹⁾고 하였다.

[4] 痿厥 爲四末束攣 乃疾解之 日二 不仁者 十日而知 無休 病已止

楊景岳은 "四末은 四肢이고, 束攣은 攣束攣亂이니 마땅히 四支의穴을 刺鍼하여 빨리 풀어야 하되 매일 반드시 두 번 취한다. 심지어 不仁이 있어서 아프고 가려워도 느끼지 못하는 자라도 十日을 풀어주면 반드시 점차 효과를 알게 된다. 이 방법은 쉬지 않고 행해야 하니 그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그 후에는 刺鍼을 그친다."⁶²⁾고 하였다.

[5] 噦 以草刺鼻 嚏 嚏而已 無息而疾迎引之 立已 大驚之 亦可已

楊景岳은 "噦은 呃逆이다. 치료하는 법은 풀을 사용하여 콧구멍을 간지럽히면 곧 재채기를 하고 재채기를 하면 氣가 도달하여 딸꾹질이 낫게 되니 이것이 첫째 방법이다. 혹은 입과 코의 氣를 막고 숨쉬지 못하게 하다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上逆하지 못하게 하면 이에 곧 나오니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 또한 혹은 다른 일로 놀라게 하면 곧 역시 나올 수 있으니 이것이 딸꾹질을 낫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다."⁶³⁾고 하였다.

56) 楊: 胸下動脈은 中府니 等量取也라 ●廓: 膺中陷者는 指足陽明胃經屋翳穴이라 按컨대 圖經卷四膺窗第三行에 屋翳는 治咳逆上氣라하고 舊注에 一謂此指膺窗穴言은 似不如屋翳爲合이라 下胸動脈은 楊上善이 曰胸下動脈은 中府니 等量取之라하니라

57) 馬: 此는 言氣逆者에 而有刺之之法也라 凡氣逆者는 上刺膺中陷者中이니 卽足陽明胃經膺窗穴也라 及下胸前之動脈은 當是任脈經之膻中穴也라 蓋在中謂之胸이요 胸之旁爲膺耳라 膺窓은 在巨骨下五寸下八分陷中하야 左右去中行各四寸하니 鍼四分灸五壯이라 膻中은 兩乳間陷中이니 氣病治此요 禁鍼하고 灸七壯이라 又曰鍼三分이라하니라

58) 丹波: 膻中에 無動脈하고 中府不在下胸하니 可疑라

59) 楊: 腹痛은 足陽明脈所主 故로 膻左右動脈은 足陽明動也라 氣街도 亦是足陽明動脈 故로 不已면 取之也라

60) 景岳: 膻之左右動脈은 如足少陰之肓俞와 足陽明之天樞니 皆主腹痛이라 氣街는 卽足陽明之氣衝也라

61) 丹波: 二穴에 未有言有動脈者하니 可疑라

62) 楊: 四末은 四支如束이라 攣은 煩也라 ●景岳: 四末은 四支也요 束攣은 攣束攣亂也니 當刺四支之穴하야 疾速解之호대 每日取之必二次라 甚至有 不仁하야 而痛癢無覺者라도 解之日이면 必漸有知라 此法은 行之無休니 待其病已而後에 可止鍼이라

63) 楊: 疾迎引之者는 以草刺無息으로 可疾迎更刺引大驚令口噦愈라 ●景岳: 噦은 呃逆也라 治之之法은 用草刺鼻則嚏하고 嚏則氣達하야 而噦可已니 此一法也요 或閉口鼻之氣하고 使之無息이라가 乃迎其氣하야 而引散之하고 勿令上逆하야 乃可立已니 此二法也요 又或以他事驚之하면 則亦可已니 此治噦之三法也라

【考察】

1. ‘下胸動脈’에 대하여는 楊廓은 中府로, 馬는 膻中으로 보았으나, 丹波는 膻中과 中府 모두 根據가 微弱하다고 反論을 제기하였고, 張은 ‘膻中陷者與下胸動脈’을 ‘膻胸間’으로 보아 足陽明胃經이 順行하는 部位로 파악하여 ‘下胸動脈’에 대하여 諸家의 見解가 다르나, 中府穴은 手太陰肺經의 起始穴로 穴性이 肅降肺氣하며 止咳平喘하고, 膻中은 心包絡의 腹募穴이며, 八會穴중 氣會穴로 穴性이 理氣止痛하니 『甲乙』에는 咳逆上氣와 唾喘短氣不得息, 口不能言을 主之한다고 하였으니, 文脈 및 穴성과 主治를 고려해볼 때 馬蒔의 注와 같이 膻中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歲’에 대하여 『校釋』, 『白話』에는 ‘噦’로 고쳐야한다고 했는데, 楊景岳과 같이 ‘噦’로 보아야 文意가 분명해지므로 ‘歲’는 ‘噦’의 誤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譯】

膻痛에는 足陽明經의 頰車穴 주위의 脈이 뛰는 곳에 刺鍼하여 血이 보이면 바로 낮고, 만약에 낮지 않을 때는 足陽明胃經의 人迎을 누르면 바로 낮는다. 氣가 逆上할 경우에는 가슴의 함몰된 부위와 胸部 아래쪽의 脈이 뛰는 부위를 刺鍼한다. 腹痛에는 臍部 左右의 動脈이 뛰는 곳을 刺鍼하고 拔鍼한 후에 누르면 바로 낮고, 낮지 않으면 氣街를 刺鍼하고 拔鍼한 뒤 눌러주면 바로 낮는다. 痿厥에는 四肢를 묶어서 답답하도록 하고 재빠르게 풀어주는 것을 하루에 두 번 한다. 不仁한 瘡라도 十日동안 행하면 감각을 느끼게 되니 쉬지 말고 행하여 病이 나오면 그친다. 脇痛에는 풀잎으로 窠구멍을 간지럽혀서 재채

기를 시키면 재채기를 하면서 脇痛이 낮고, 숨을 멈추었다가 재빨리 들이마시면 脇痛이 바로 낮고, 깜짝 놀라게 해도 또한 낮는다.

IV. 結 論

「雜病」에 對한 各家註를 比較, 考察하고 譯解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第二章 四節에서 ‘渴而日作’은 ‘間’字가 脫簡된 것으로 ‘渴而間日作’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2. 第二章 七節의 ‘宛骨’은 ‘手太陽小腸經의 腕骨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第二章 七節의 ‘不已’에서 ‘不’字는 衍文이므로 ‘不已’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4. 第二章 十節의 ‘頰之盛脈’은 ‘頰車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第四章의 ‘當九節刺之’에서 ‘九節’은 督脈의 筋縮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第四章의 ‘按已刺按之’는 ‘不已刺按之’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7. 第四章의 ‘上下求之’에서 ‘上下’는 上下의 背腧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第五章의 ‘歲’字는 ‘噦’字로 고쳐야 한다.

參考文獻

1. 郭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 一中社. 1981 : 233-41.
2.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723-27.
3.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 臺聯國風出版社. 1981 : 220-27.
4. 澁江抽齋. 靈樞講義. 大阪 : オリエント出版社. 1988 : 95-110.

靈樞·雜病篇의 雜病治療經絡에 대한 研究

5. 陳璧琉·鄭卓人. 靈樞經白話解.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63：241-48.
6.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大星文化社. 1994：252-60.
7. 王冰撰. 靈樞經. 臺北：臺灣中華書局. 1972：126-28.
8. 楊上善撰注, 蕭延平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453-601.
9.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논장. 1990：171-89.
10. 張介賓. 類經. 서울：大星文化社. 1982：494-513.
11. 陣夢雷 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224-31.
12.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448-65.
13. 皇甫謐著·山東中醫學院校釋. 鍼灸甲乙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79：918-1465.
14.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590-95.